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1: Origins

Edited by Melvyn P. Leffler, University of Virginia , Odd Arne Westad,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Publish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printed 2012

20장 Cold War mobi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 the United States

Laura McEnaney

- * 냉전과 미국 국내정치와의 만남 -> 국가/안보/효율과 자유/헌법정신/개인 의 대립
- * 세계적인 냉전이라는 강력정치의 세계와 미국의 자유주의적 전통의 만남 -> 권력과 자유의 충돌
- * 전통학설은 the Cold War culture가 냉전기 미국사회를 총제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
- * 그러나 그 이후 수정주의적 견해는 이러한 냉전의 강한 영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세심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자고 주장함 -> 냉전문화는 강했으나 전통적인 미국의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미국의 문화는 냉전문화에 지배되지 않고 존재했다
- * 저자의 입장 -> 냉전의 강력한 영향력은 인정하지만 미국 국내정치에서 이러한 냉전논리는 많은 역설과 한계를 보였다
 - 언어와 상징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가기관이 이러한 언어와 상징은 만들고 이를 활용한 측면 강조
 - 국제적 국가안보가 냉전 이전의, 자유주의적인 방식의 질서 옹호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분석
 - 냉전 이후 60년대까지 분석
 - 초기냉전은 담론, 국가정책, 대중정치의 삼중주로 봄
- * 미국에서 냉전의 위력은 강했으나 냉전의 전사들이 주장하듯이 미국이 병영국가가 되어 본적은 결코 없다 -> (423) Michael Hogan이 주장하듯이 “국가안보가 문화적 이념적 순응성을 무자비하게 강요했지만, 국가안보는 결코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The Cold War's “many McCarthyisms”>

- * 맥카시즘은 미국이 보수 민중주의와 불만과 불안정의 산물이라는 초기의 심리적 해석이 있었으나 1970년에 이르러 이러한 해석에 변화가 생기면서 맥카시즘을 냉전의 “산물”로 보려는

경향이 생김 -> 심리적 해석의 거부

* 현재의 해석은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이 아니라 양대정당을 막론한 엘리트의 탑다운 현상으로 봄 -> 정부, 기업, 시민단체, 양당 등 주류정치에서 나타난 엘리트 주도의 현상

* 맥카시즘은 하나의 맥카시즘이 아니라 다양한 맥카시즘이 있었고, 이 가운데 하나는 후버의 맥카시즘(Hooverism)임 -> 후버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미소냉전의 상황에서 체제비판적인 인물을 색출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함

* 노동자와 관련된 Taft-Hartley Act of 1947은 반공산주의 충성진술서(non-Communist affidavit) 조항을 두어 공산주의 의심자를 색출하게 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노조의 과격주의를 견제할 수 있게 함 -> 의원 역시 이 법의 통과 이후 급진주의에 대한 자유로운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됨 -> 노조의 온건성향 강화의 계기

* 이제 정치인은 이러한 법률을 바탕으로 반공의 이름을 빌어서 공산주의 세력과 급진주의 세력을 공격할 무기를 얻음

* 후버리즘과 FBI가 등장함 -> 후버는 반공을 논리로 급진분자를 색출할 명분을 얻음

* 이제 국가안보라는 담론이 미국전역을 휩쓸고 지나감 -> 외교, 군사적인 업무가 아닌 것에도 국가안보의 담론이 지배하는 현상이 등장함 -> 이제 국가안보국가는 훈육국가(disciplinary state)가 됨 <- Gary Gerstle

* 새로운 문화적 기조를 등장한 국가안보국가는 a kind of ambient militarism in which military priorities and mindsets came to dominate popular discourse를 창출함 <- Daniel Yergion

* 트루만과 아이젠하워는 이러한 안보담론의 지나친 팽창에 대해서 disciplined objections를 제기했으나 정당의 분열과 정치적 공격을 두려워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언급하지 못함

* 그러나 이러한 맥카시즘의 안보담론이 미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유권자의 가장 일상적이고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국가안보보다는 세금과 경제에 더 큰 관심을 보임 -> (430) Ellen Schrecker -> "while the specter of communism has haunted US politics since 1917, it never prowled full time"

<The Cold War and the liberal state>

* 반공안보국가는 강하고 팽창적인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맥카시즘은 오히려 팽창적인 반공자유주의국가는 소비에트적 국가라고 비판함

* 트루만 등 민주당 행정부는 반공과 동시에 뉴딜자유주의를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데 이러한 노력은 이러한 공화당 보수주의의 비판으로 딜레마에 처함

* 결국 반공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massive state가 garrison state가 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나타남 -> Michael Hogan -> Liberal intellectuals were willing to put the containment of communism ahead of the welfare state while conservative intellectuals were prepared to give statism a back seat to anticomunism

* 한편 이러한 냉전반공주의는 미국 국내의 인종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즉 민권운동은 대외적으로 소련 전체주의에 대항하면서 국내적으로 냉전 자유주의의 길을 열어서 민권이 신장할 기회를 찾기에 이름 -> 냉전 자유주의는 냉전의 논리에 충실하면서도 국내적으로 매카시즘적 반개혁에 저항할 기회를 찾음 -> unintended opportunities의 창출

* 브라운 vs 교육위원회 판결과 같은 separate but equal에 의한 지속적인 인종분리 정책은 국제적으로 미국의 냉전 안보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함 -> 따라서 냉전 반공주의의 국제적 지속을 위해서는 국내적인 민권타협이 필요함

* 즉....

* 미국의 인종분리주의자들은 NAACP의 과격한 인종평등론자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함 -> 이러한 상황에서 NAACP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과격분자를 축출하여 반공안보국가와의 협력 하에 민권을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각도에서 흑인민권지도자들은 반공의 투사가 됨 -> - 트루만 행정부 당시 태프트-하틀리법을 통한 당시의 노조의 온건화추구정책과 유사함 ->

* 흑인 민권운동은 결국 이후 트루만 당시 군대내 인종차별 철폐에 성공하고 법무부 내에서 브라운 vs 교육위원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지원세력을 마련함

* 50년대 민권운동은 그러나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없었음 -> (435) 왜냐하면 rights talk was almost always yoked to containment and war -> Michael Sherry -> the preoccupation with national security... made the reform impulse both urgent and limited

<Making peace with the bomb>

*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종교에 대한 의존도를 증대시킴

* 기독교적 종말의 이미지를 핵무기가 지니게 됨

* bomb consciousness 가 형성됨 -> 특히 국제적 위기에 핵폭탄이 실제 사용될 수 있다는 공포감은 커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전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대중적인 풀뿌리 차원의 국가적인 전쟁준비운동을 나타나지 않음

* 엘리트와 달리 시민들은 핵전을 두려워하면서도 핵무기의 공포가 일상을 지배하는 self-help defense를 일상적으로 체화하지는 않음 -> (439) Cold War citizens were private pacifists but public militarists

<The limits of Cold War Culture>

* 외교와 국내의 관계를 냉전 초기를 중심으로 봄

* 냉전문화는 너무나 간단하고 포괄적인 표현지만 냉전은 결코 monolithic하지 않았다 -> 공산주의는 나쁘고 안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러한 공감대가 일상의 삶속에서 체화되거나 실행되는 정도와 방법, 수용의 수준을 모두 차이가 있었다

* 냉전의 국내전선의 모호성과 분열이 있었다 -> 노동운동과 민권운동은 국제적으로 냉전을 지원하는 대신 국내적으로 권리의 증진을 요구했다

* (441) In the end, it was the diversity, plurality, and the decentralized individuality of postwar American society - the very characteristics celebrated by Cold War boosters that made Cold War political culture less sturdy and steady than its adherents had hoped. The Cold War's cultural authority was constantly tested by those more resilient and long-evolving features of American political culture

=====

주제

1. 매카시즘 등 미국의 반공주의는 엘리트의 산물임 - 정부, 정치인, 시민단체, 언론, 싱크탱크
2. 매카시즘 등 다양한 냉전 반공주의는 국내적으로 인종차별운동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의도되지 않은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내의 다양한 정치적 개혁운동 등과 접촉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드러냄 -> 냉전담론이 결코 미국의 자유주의 논의를 억누르지 못함